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자기' 버려야 '주인공' 믿을 수 있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와 "나"는 스님께서 말씀하신 주인공이나 참 자아, 법, 불성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즉 천상과 천하에 나만이 존재한다면 얼굴은 다 틀리지만 결국은 모두가 "나"가 되는 겁니까? 또 내 속에 있는 주인공이 진리란 말입니까? 거지가 돈을 요구하면 주어야 맞습니까? 사기를 당하면 다른 나가 가져간 겁니까? 내가 잘살아야 다른 나에게 부담을 안주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사는 겁니까? 능력, 돈, 이런 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타락 안 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이 천국에서 우리는 지옥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감히 부처님, 예수님 말씀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답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좀더 폭넓은 지혜로써 지견을 쓴다면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몸 속에 들어 있는 그 의식 자체가 악업 · 선업이 뭉쳐서 우리 인간이 됐으니 그것들이 모두가 내 마음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을 악으로 쓴다거나 선으로 쓴다거나 그런 다면은, 악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악으로 같이 해 주고, 선으로 생각한다면 선으로 같이 해줍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 "'苦' 만들지 말고 근본에 던져놓고 가볍게 사세요"

우리가 말입니다. 지구 벌레라고 합시다.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생명들과 같이 이 몸을 지구로 삼고, 우리의 생명과 같이 우리도 지구의 벌레로서 지구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도 모르면서도 항상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하기 때문에 지구도, 즉 말하자면 수명이 오래도록 갈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그렇습니다. 지구와 같이 안에서 파워가 일어나서 싸우고 한다면 몸뚱이가 망가집니다. 세포가 굳어지고요. 콩팥에서 걸러주는데 벌써 지장이 생기고 붓고 또 간이 나빠지고 위가 나빠지고, 어디는 안 나빠집니까? 한 곳이 나빠져서 거기를 치료하면은 또 다른 데에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 그렇게 되면 몸뚱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집이 망가지는 거죠. 이 몸뚱이는 우리의 집이라고 봅니다. 집이 망가진다면 뭘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효죠. 아무리 우리 의식이 있다하더라도, 지금 현 세상차원에 따라 이 세상에 다시 바꿈질을 해서 진화되기도 하고, 또는 끝간데 없이 우리는 이 중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서 벗어나고, 지구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해서 업보니 유전성이니 영계성이니 하는 문제들이 모두 생기는 거죠. 종교도 잘 못 믿으면은 의식이 잘못돼서 말도 안하고 방에만 들어앉아 있으니 병이 생기고 그냥 미친 병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식들을 못 키우고, 키우다가도 못 쓰게 만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한 집에서 그런 거 하나를 해결해도 이건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죠.

누가 삶을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신 살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가 걷고 자기가 자기 정신계의 자기를 믿고 말겨서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데다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고 자기는 부지런히 살고, 빙긋이 웃으며 사는 거죠. 현재 이 모습 가지고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한 생인데 이 한 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차원대로 산 것대로 또 재생할 때는 과거에 산 것대로 차원이 든지 삶이든지 생김생김이든지 모든 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마음공부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지금 못생겼으니깐 조금만 더, 잘 생긴 거는 바라지 않아도 그저 밉지 않게 생겨서 마음이 너그럽고 지혜로워서 남한테 해로움을 주지 않고 이익을 주고 내 자신도 해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육신은 참 자기가 아닙니다. 진짜 자기가 아니고 진짜 자기의 시자인 겁니다. 모습은 즉 말하자면 심부름꾼이죠. 몸은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정신계의 자기가 있다는 거를 꼭 믿고 그렇게 하세요.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으세요. 그러고 당신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어떠한 문제든지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보이지 않는데서 다 해결이 돼서 보이는 데에서도 해결이 나게끔 돼 있는 겁니다.

늘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항상 얘기했죠.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체면서 공용을 하고 산다고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공법에서 만법을 들이고 어떠한 문제든지 들이고 내고 살아도 걸림이 없다는 거를 알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고 끄달려서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알도록 더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해야합니다.

세상 모든게 너무 허무합니다

문 너무나 허무합니다. 너무나 허무해서 가슴이 터져 버릴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저는 여섯 살 때부터 허무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허무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허무인지 그 끝을 잡고 시작을 찾으려고도 해보고, 또 허무하다는 사실을 인정도 해보았지만, 그래도 너무나 허무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오면 나뭇잎이 피었다가 가을에는 그 잎이 땅에 떨어지는 걸 밟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되면 대부분 사는 자체가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허무한 게 아니라 그 가랑잎이 지고 꽃이 져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성계가 꿈을 꾸고 생각했듯이 말입니다. 야, 추운 겨울에 꽃이 피었다가 사르르 지고 눈이 오니까 그 꿈을 나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학대사가 꿈 해몽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꽃이 다 떨어지니 열매가 맺겠구나" 했으니 얼마나 꿈 해몽을 의미 있게 했습니까.

그러니 생각하기 달렸지 않습니까? 무한정이에요. 마음이라는 거는 무한정이라 생각하는 것도 무한정이에요. 동서남북이 벽이 없어요. 지구도 벽이 없어요. 그래서 지 · 수 · 화 · 풍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력과 전력과 광력이 충만해 가지고 서로 당기고 당겨서 힘이 생겨 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게도 되고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유로운 마음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차원대로 죽어도 더하고 덜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차원이 더하고 덜함도 없어서 다시금 화해서 형성될 때에 내가 과거 살던 차원이 현실에 또 나온단 얘깁니다. 그러니 우리 고등동물들은 고등동물로서의 이렇게 아픔을 겪고 나왔는데 이거마저도 우리는 벗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살림살이는 지구의 살림살이하고 어느 혹성의 살림살이하고 똑같은 살림살이가 아닙니다. 차원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습성이 전부 다르죠. 세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요. 사는 살림들이 말입니다. 사는 건 똑 같겠지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얼마나 억겁을 통해서 진화하면서 좌천이 되며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정맥 동맥이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얼마나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울어야만 하고 아파야만 하고 허무해야만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이 세상의 동물들을 보세요. 만약에 동물들을 봐도 '나도 너의 모습처럼 그랬을 때에 나도 너 같았으니까 바로 나야' 하고선 생각했을 때에 해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모하게 어느 골짜기에서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돈이나 물건을 뺏으려고 마구 치고 뺏습니다. 그러면 짐승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마음에 따라서 짐승들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짐승도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 죽 솥의 죽 방울 많아도 한 죽방울이듯
> 생각 · 경계 주인공 나툼이니 속지 말라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먹기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팔자 운명을 만드는 거지 누가 갖다 주고 뺏어가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는 팔자 운명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계발하면 계발하는 대로 달라지니까요. 오늘은 요런 그릇이었다가 내일은 한생각 돌리니까 이만한 큰그릇이 됐단 얘깁니다. 조그만 연못에서 놀던 고기는 큰물을 모릅니다. 생각조차도 못하죠. 거기가 아주 족한 줄 알고, 거기 뿐인 줄 알고 살거든요. 그것 뿐 인줄 알고 말입니다. 그러니 나라는 생각을 고집하지 말란 얘깁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온 누리를 덮고도 남음이 있고, 들고도 남음이 있고, 돌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펼치면 펼치는 대로 넓어지고 좁히면 좁히는 대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무하다 힘들다 지겹다 라는 생각을 넓히고 펼쳐서 더 고를 만들지 마시고, 공을 만들듯이 똘똘 뭉쳐서 근본에 던져놓고 새털처럼 가볍게 살아가세요. 아셨지요?

왜 좌선을 하라 하시는지…

문 스님께서는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그대로 참선이고 좌선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법문을 들으면 하루에 한 30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좌선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 앉아있는 거나 서 있는 거나, 마음먹고 앉아있는 거나 서 있는 거나 그대로 참선이라 그랬으면 좀 틈을 내서 앉는 것도 좋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선이다 저게 참선이다 하지말고 참선을 하라고 했지 누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조용한 시간에 혼자 앉아서 좌선을 하라고 하니까 때에 따라서 틈내서 앉았으면 명상도 되고 참선도 되고 좌선도 되고 그런 거지, 마음을 좀 쉬어볼 수 있는, 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닙니까? 부지런히 일할 때 일하면서 공부한다면 그게 참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진리가 돌아가는데 쉴 사이 없이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나 좌선한다. 하루 24시간 동안에 8시간을 좌선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좌선했다면 좌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앉았다면 그냥 좌선일 뿐이지 참선이 될 수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왜 참선이 될 수 없느냐? 내가 앉는다고 생각하고 앉고, 선다고 생각하고 서니까 그 나머지는 다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누우나 모든 게 참선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관하고 좀 앉아있는 시간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간도 없다면 어떻게 정립을 하고 어떻게 관하고 어떻게 그 만가지의 맛을 알겠습니까? 내 자가발전소가 만가지 생산을 낼 수 있는 바로 생산처라면, 그 생산처에서 바로 그 맛을 안다면 만 가지의 맛을 낼 수 있고 만가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 가지의 생산을 해서 남을 만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심력과 원심력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죠.

주인공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문 주인공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주인공은 왜 있는 것입니까? 이론적으로는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조차도 주인공에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법문도 듣고 싶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저의 식구들 모두가 주인공을 알도록 주인공에게 놓고 있습니다.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어리석은 질문 올려서 죄송합니다.

답 처음에는 "주인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저렇게도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급하니깐 무조건 맡기기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깐 무조건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무조건 믿으세요. 물러서지 마시고 믿고 거기다 맡기시는 작업을 하세요. 왜 우리가 용광로에다 헌 쇠 모두 갖다 쓸어 넣죠? 그러면 새 쇠로 생산이 돼서 다시 나오죠? 그런 작업을 하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무엇을 믿느냐고 하는 그 자체를 믿으란 말입니다. 자기를 자기가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자기 몸 속에서 자기 생각이, 모습 없는 모습이 수 만개라도 펴져서 나갈 수 있고 수 만개로도 들어올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수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작년 수박 씨를 심어서 수박이 됐는데, 수박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이거 뭐꼬?" 한다면 되겠는가 하더랍니다. 그러니 벌써 그 시대가 지났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씨가 화해서 나온 수박이 "이게 뭐꼬?" 하지말고 수박은 그대로 수박이며 수박 속에는 반드시 수박 씨가 있다는 걸 알아라 이겁니다. 그러듯이 자기 안으로 그냥 들어가야지 이게 뭐꼬 한다면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난 급해서도 그렇게 못 있어요.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박은 수박 씨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수박 씨는 반드시 봄이 오면은 심어서 싹이 나고 또 수박이 열려서 만 중생을 다 먹이고도 되 씨가 남아서 또 먹이고 또 먹이고 해도 끝간데 없이 먹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 모르는데 어떻게 믿죠

문 현대불교에 연재된 내용을 읽고 가슴에 새기면서 공부를 해나가다가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한번 실행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는데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내가 주인공을 믿는다고 마음 속에 다짐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는데 내 주인공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믿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답답해지고 멈춰서 있는 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 "보고 듣고 말하고 오가는 게 空 하니 고정된 게 없어"

답 알고 모르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자체가 바로 자기에게 주인공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스스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먹는 거 자체가 모두 공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 그러는 겁니다. 뜻이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이 났습니까? 그런 생각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또 그런 생각 안 나는 것도 거기서 나오니까 주인공이죠.

예전에 누가 죽 솥에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 끓어서 막 이 방울 저 방울 다 나와도 죽 방울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 방울이 죽 솥에서 끓어서 막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주걱으로다가 요놈도 문수, 조놈도 문수 하면서 쳤단 말입니다. 요놈도 문수, 저놈도 문수 하면서요. 그러니까 요놈도 주인공, 이놈도 주인공, 저놈도 주인공…, 그러다 보니깐 그 한 솥에 있는 죽 방울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에도 속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고 · 집 · 멸 · 도 사제법이 생긴

☞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